

동갑내기 김혜수·이정은 눈부셨다

영화 '내가 죽던 날'서 호흡 맞춰 경찰-섬 주민 역으로 공감대 얻어 남자배우 틈 속에서 당당히 톱10



남자배우들이 장악한 스크린에서 김혜수(왼쪽)와 이정은이 '2020년을 빛낸 영화배우' 10위권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사진제공 | 호두엔터테인먼트·스포츠동아 DB

"모든 걸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었다." (김혜수)

30년에 가까운, 짧지 않은 길을 카메라 앞에서, 무대 위에서 걸어왔지만 여전히 힘겹다. 때마다 은퇴를 떠올리며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관객이 있었다. 그래서 카메라 앞을, 무대 위를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걸어왔던 길의 한 가운데서, 2020년 스크린에서 빛을 발했다.

배우 김혜수와 이정은. 1970년생 동갑내기인 두 사람이 올해 스크린에서 가장 활약한 배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0년을 빛낸 영화배우'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김혜수와 이정은은 남자배우들로 가득찬 10위권에 당당히 자리를 잡았다.

#남자배우들 틈바구니에서 '악전고투'

올해 11월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3세 이상 17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김혜수는 9위(3.5%), 이정은은 10위(3.4%)를 차지했다. 송강호(27.8%), 이병헌(14.0%), 마동석(9.1%), 황정민(7.5%), 공유(5.9%), 하정우(4.0%), 이정재(3.6%)의 순위에서 두 이름이 유난히 빛난다. 더욱이 손예진이 드라마 '사랑의

불사작'의 활약으로, 조여정이 '기생충' 속 존재감으로 각각 이름이 거론됐지만 순위권에는 들지 못한 상황이다.

그만큼 한국영화계와 스크린 속에서 남자배우들이 여전히 힘을 과시하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7월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영화의 성 불균등 및 불평등 실태를 분석한 '한국영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흥행 50위권 468편의 작품 가운데 절반이 "이름이 있는 여성 캐릭터가 둘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배경에 가까운 인물이거나, 남성으로만 구성된 동성 집단에 구성 맞추기 정도로만 존재"에 그쳤다.

이번 한국갤럽의 설문조사 결과는 이

같은 환경 안에서 김혜수와 이정은의 '악전고투'가 얼마나 큰 성취로 이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심의 공감과 충만한 연대로"

두 사람은 11월12일 개봉한 영화 '내가 죽던 날'에서 호흡을 맞췄다. 경찰 수사 사건의 증인인 한 소녀가 외딴 섬에서 사라지며 벌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김혜수는 그의 행적을 찾아 나선 형사, 이정은은 섬 주민이었다. 이들은 소녀의 이름을 보듬어가며 자신들의 상처까지 치유해간다.

영화는 김혜수와 이정은의 연기로 온기를 채우며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한국갤럽의 설문조사 결과는 올해 유난히 여성 캐릭터가 중심이 된 영화가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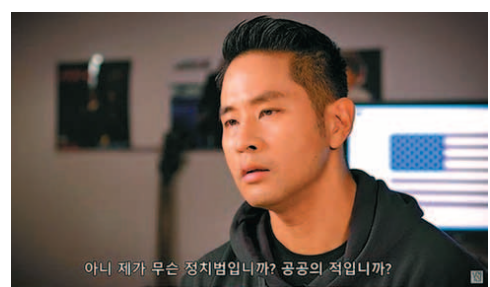
았던 스크린에서도 두 사람이 더욱 뚜렷한 성과를 이뤘음을 보여준다. 두 사람은 처음 호흡을 맞췄지만 "서로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함께 공기를 마시고 느끼며 서로를 바라보게 하는 진심의 공감"과 "충만한 연대"로 함께했다고 돌아봤다.

스크린 스타로서 관객을 만나온 김혜수, 올해 '내가 죽던 날'과 함께 드라마 '하이에나'로 시청자와도 만났다. 이정은은 오랜 무명의 연극무대에서 날아와 2015년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이후 지난해 개봉작 '기생충'을 통해 올해 대중상 여우조연상의 영광을 누렸다. 김혜수는 드라마 '소년 심판'으로, 이정은은 영화 '자산어보'로 내년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나만 약속 안 지키냐?"... '유승준 방지법'에 막말

유승준, 유튜브 채널 통해 반말 누리꾼들 "자업자득" 태도 비난



가수 유승준이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에 대해 거칠게 비난하면서 자신과 관련 없는 이슈까지 거론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 모으고 있다. 사진출처 | 유튜브 영상 캡처

막말은 결국 "자업자득"의 비난으로 이어졌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이 최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 이른바 '유승준 방지 5법'(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있던 막말과 실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유승준은 1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40여 분에 걸쳐 관련 법안에 대해 "제가 강간범이나, 공공의 적이나, 아동 성범죄자"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항의했다. 그는 "약속 지

키지 못한 게 죄야? 너네는 평생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면서 "나는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준 내 팬들하고 약속했다. 왜 나라가 나사냐. 군대가 됐다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입국하려던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하고? 솔직히 추미에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나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대 때문에 허탈해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급기야 세월호 참사와 촛불시위, 2002년 6월 중학교 2년생이던 신효순·심미선 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효순이·미선' 사건 등을 거론하며 막말을 쏟아냈다. 그는 "민족성 자각해서 효진이·미진이 사건으로 반미감정 부추기고, 세월호 참사와 촛불시위 이용하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앙과 심양의 이름을 '효진이·미진'으로 잘못 말한 그는 "촛불시위 내세워 혁명 이뤘다고? 그거 혁명이나. 피만 흘리지 않았지, 그거 쿠데타다"는 등 비난을 이어갔다.

이에 많은 누리꾼은 주말 내내 "무엇이 잘못인지 되돌아보라"며 그의 태도를 비판했다. 일부는 "세금으로 정치인이 될 하는지 걱정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이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의 히트곡 '나나나'를 작곡한 김형석은 "내 노래를 불러주고 동생으로 맺은 인연이라 사실 그동안 좀 안스럽다 생각했다"면서 "지금 보니 내 생각이 틀렸네. 자업자득, 잘 살아라"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한 김병주 의원은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ann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하늘의 별이 된 '응삼이' 박윤배



박윤배

폐렴유증으로 투병하다 18일 별세한 연기자 박윤배가 영면에 들었다. 향년 73세. 20일 오전 박윤배의 발인식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이어 고인은 충남 공주 나래원에서 세상과 영원히 이별했다. 박윤배는 중앙대 연극영화학과를 나와 1969년 연극배우로 연기를 시작, 1973년 MBC 공채 탤런트 6기로 데뷔했다. 국내 최장수 드라마 '전원일기'(1980~2002) 속 '응삼이' 캐릭터로 시청자 사랑을 받았다.

이영지·이시연 자체 제작 상품 수익금 기부



이영지

가수 이영지와 연기자 이시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힘겨운 이웃을 위해 자신들이 개발한 상품 판매 수익금을 기부한다. 이영지는 '나가지 말라! 나가지마' 등 문구와 캐릭터를 담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제작 판매했다. 모두 9억8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시연도 직접 제작한 후드 티셔츠를 판매해왔다. 이들은 관련 수익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불안장애 정형돈, 다시 방송 활동 시작

불안장애 등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방송인 정형돈이 다시 카메라 앞에 선다. 정형돈은 KBS 1TV '옥탑방의 문제아들'과 JTBC '몽쳐야 찬다'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정형돈은 2016년 1월에 이어 올해 11월 초 불안장애 등 증세 악화로 활동을 중단했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0일 "그동안 꾸준히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치료에 전념해왔다"면서 "주변의 응원도 큰 힘이 돼 방송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YouTube '성경 경제기부학' (1~10부) 시청 후 문의바람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본소득 150만원 평생지급

누구나 모두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한해 버려지는 반려동물 135,000마리, 하루 평균 32마리. 이를 위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 가족으로 둔 1시간에 2명씩 자살하는 1030세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을 살리는 신르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입니다.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종교재단' 등극!!!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김성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초 010-6462-6712 / 역삼 캠퍼스 010-5647-5428 / 김석우 청국장 010-7653-5373 / 이추자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명배 010-8220-8801 / 강영석 010-3274-528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삼석 010-7309-1000 / 민영숙 010-5118-5263 / 임현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최영민 010-4741-7008 ● 초안고 010-7374-4111 / 서재호 010-8770-2935 ● 대전 김원구 010-8029-0059 / 임용환 010-3742-5938 / 전달민 010-2391-8259 ● 대구 권영희 010-4646-4950 ● 울산 지영원 010-8003-5323 / 최태수 010-4830-1810 ● 창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 천안 김태혁 010-6258-3510 / 오영숙 010-9804-3424 ● 인천 박준표 010-3227-0933 / 우만 홍원표 010-6717-1719 / 서동원 010-3489-4190 / 김보중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 이천 허찬석 010-4707-2659 ● 판문점 010-5177-9479 ● 여주 정근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최만재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리영태 010-8005-3616 ● 경기 남부 캠퍼스 010-6806-1931 / 노수림 010-5153-5983 ● 평강 교영실 010-5463-6952 ● 충북 충주동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하위이 미니나 010-8763-8742

-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 인류의 구세주
 - 21세기 제2의 석유
 - K-biz, K-pay, K-platform
 - 성경기부경제학
 - '자본공유앱APP'
 - 선착순 자동결제기부 플랫폼

하이우분투(주)
Hiubuntu 1644-6733